



“귀 기울여 들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3일 오후 서울 신청사 정문 잔디광장에 설치된 시민청 상징조형물 ‘여보세요’ 앞에서 한 어린이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 시민들은 조형물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해 시에 바라는 의견을 밝힐 수 있다. 김주영기자 will@hk.co.kr

서울신문

2013년 03월 04일 월요일
027면 종합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원순(뒷줄 오른쪽 네 번째) 서울시장의 3일 신청사 정문 잔디광장 앞에서 열린 시민청 상징조형물 ‘여보세요’ 제막식에서 더 많은 시민 얘기를 경청하겠다는 제작 의도에 맞춰 참석자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조형물 ‘여보세요’ 제막식

서울시청 시민청 상징조형물인 ‘여보세요’ 제막식이 신청사 정문 잔디광장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열렸다.

시민청 상징조형물 ‘여보세요’는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겠다는 의미로 2.5m 크기의 귀 형태로 제작됐다. 청동조 조형물인 여보세요에 설치된 마이크를 통

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녹음하면, 지하 시민청 내 스피커를 통해 소리가 전달되도록 했다.

행사에는 조형물을 제작한 공공 예술작가 양수인씨의 작품설명과 함께 참석한 시민들이 직접 조형물에 녹음하는 체험행사도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막사자르의 온드라흐 외국인 명예부시장과 김의인·조준호 1일 시민시장, 시민청운영자문위원 10명, 시민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서울시장 아저씨, 제 말 잘 듣고 계세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3일 오후 서울시청 새 청사 앞 잔디광장에 마련된 시민청 상징조형물인 ‘여보세요’의 제막식에서 어린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자세를 하고 있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겠다는 뜻에서 청동으로 귀 모양을 본떠 2.5m 크기로 만들었다. 조형물 마이크로 시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이를 녹음해 시민들에게 개방된 새 청사 지하 시민청의 스피커로 전달해준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파이낸셜 뉴스

2013년 03월 04일 월요일
030면 피플

시민청 조형물 제막식



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 서울 신청사 정문 잔디광장 앞에서 김의안·조준호 1일 시민시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청 상징조형물인 ‘여보세요’ 제막식을 열었다.

장조형물인 ‘여보세요’ 제막식을 열었다.

Seoul to run half-price restaurant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plans to run “half-price restaurants” in the form of cooperatives to enable low-income earners to have a meal for around 2,500 won to 3,000 won.

Under the plan initiated by Seoul Mayor Park Won-soon, SMG will discuss how to set up the restaurants with community organizations in areas where low-income residents live in cooperation with restaurant chains.

Park said the restaurants could open near permanent lease housing complexes — homes for those with low incomes.

However, the plan is raising concerns about possibly negative



Seoul Mayor Park Won-soon

impact on existing family-run small restaurant operators, with responses from most netizens being critical.

A Facebook user Kim posted a reply on Mayor Park’s posting, saying, “Many self-employed restaurant owners are on the verge of collapse, and the half-price eateries would make it harder for them to stay afloat.”

In response, Park said, “Since the restaurants will be operated by community organizations, it won’t negatively affect existing restaurant operators. Besides, we will not aggressively press forward with the plan to the point of damaging existing small businesses.”

eunji.bk@koreatimes.co.kr